



봉우 컬럼

명예보다 의리

요즘 미국에서 화제가 된 저서가 있다. 이는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사임 후 쓴 회고록인데, 그는 그간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과의 수면 아래의 일들을 낱알이 공개하고 있어 대통령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그의 행태를 두고 언론은 양분되었지만, 그를 향해 '나라보다 자신을 우선시한 겁쟁이이자 기회주의자'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가장 아프다. 나도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믿었던 제자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 얼얼했다. 그러나 맞은 뒤통수보다 더 아픈 것은 배신당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언젠가 타 교단 목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여러모로 보나 놓치기 아까운 실력과 목사였다. 그런데 그는 내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교회 담임목사의 부담을 서슴없이 늘어놨다. 나는 그를 천거하는 우리 목사에게 '저 사람을 쓰면 안 된다. 나중에 저 사람은 나가서 나를 저렇게 욕할 사람이다.'라고 해줬다.

예전에는 '여자는 절개, 남자는 의리'라며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배신자가 승승장구하던가. 성경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잠11:4)며 사람이라면 자고로 의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의리, 요나단과 다윗의 의리,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룻의 의리,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섬긴 요한의 의리...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모진 고통을 참아내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의리. 이들 모두의 끝은 아름다웠지 않은가.

명예보다, 돈보다 의리를 택하라. 고객과의 의리, 백성과의 의리, 성도와의 의리,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자가 승리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살고 볼 일이지 무슨 자존심이나

"열등감은 사고의 원인이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목사님이 진단하신 말씀이다. 열등감이 무엇인가? 결국 자존심의 상처로부터 빚어진 패배적인 감정 아닌가. 외부로 폭발하면 남을 죽이고, 내부로 폭발하면 자신을 죽인다.

목사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드시며 자존심에 얽매이지 말고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호소하듯 말씀하셨다.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다가 첫날 우는

할 기회라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행위는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죽을 마음으로 살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죽음을 택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자괴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존심이 짓밟히는 수모를 이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예수님께 개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깟 내 자존심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개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내 딸만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사시고 딸을 고쳐주셨지요. 미친 딸을 고침 받은 그 여인에게 순간 당한 수모쯤이야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위신 세우는 일에만 급급하던니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생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자!

소리에 깨닫고 회심한 후, 부활하신 예수 앞으로 달려 나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수제자가 되었지만, 가롯 유다는 스승 예수를 삼십 냥에 팔았다가 자신의 잘못은 깨달았지만 자괴감을 못 이긴 채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자살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인, 사업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분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건만, 타인의 생명을 끊는 일이나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나 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자살이 더욱 심각한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는 살아있기에 회개

기할 때, 예수님이 당한 수모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 구름떼 같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호산나 찬송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 주먹질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며 조롱을 당할 뿐 아니라 무서운 채찍질에 흉악범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지경이 되면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인류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모든 수욕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랬더니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수모보니까 여인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려 미친 딸을 고쳐야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수욕을 견뎌셨습니다.

마감했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자존심이 뭐 말라죽은 겁니까? 자존심 지키려다 다 잃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입니까? 일단 살고 볼 일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기회라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회입니다. 살아있어야 회개할 기회도 있고, 살아있어야 구원받을 기회도 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삼급 쌀을 기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은 능력 밖입니다. 제발 부작하건대 지금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돌이켜 살아보십시오. 다시 시작해봅시다!"

"~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겔16:6).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39:1~9)



복은 사람을 따라 다닌다

운명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터가 좋아야, 선조의 묘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지혜를 얻듯, 복 있는 자를 만나야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코다”(시1:1~3).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정직한 자요, 진실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그런 자를 좇아다니며, 그런 자를 만나야 집 안에, 기업에 복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창39:5),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들어가자 전옥이 복을 받았으며(창39:21),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자 애굽이 복을 받았습다(창41:48~49). 요셉이 정직했기에 복이 그를 좇아다닌 겁니다.

정직(正直)은 바를 정(正), 곧을 직(直)으로,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을 말합니다. 곧 정직은 의인의 표요, 정직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전7:29).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자 그는 정직 대신 꾀를 발휘해서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창3:12). 그래서 복이 떠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해서요.

진실은 빛이요 거짓은 어둠이다

그러나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 생기고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보디발 몰래 얼마든지 그 여인과 정분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편안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자기를 가장 총무로 세워준 보디발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하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정직한 자가 마땅히 받을 복을 받았습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

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잠11:3).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애3:38).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서 정직한 자를 자랑하시며(시64:10), 그의 장막을 흥하게 하시며(잠14:11),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잠15:8),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시15:1~2),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시11:7),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시84:11), 흑암 중에도 빛을 보게 하시고(시112:4),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사26:7). 정직한 자를 복이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 미워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거짓된 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잠6:16~19).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요8:44).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지 않듯이,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들이지 않기에 정직하지 못한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계21:8).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아말렉 군대를 치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고 묻자 사울은 거짓말로 이를 둘러댁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삼상15:15). 정직하지 못한 대가가 어땠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

님께 버림을 받았고, 왕권도 박탈당했으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거짓말로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사하지 않았습니까(행5:1~11).

반면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어 그를 죽이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질타하자 그는 둘러대지 않고 바로 사실대로,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대소를 따지자면 다윗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으나,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의 결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를 가리켜 “주의 종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왕상3:6)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짓으로 둘러대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목회 초기의 일입니다. 제가 몸을 돌보지 않고 집회를 다니다보니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이란 분이 제게 ‘제발 건강을 돌보라’며 웅담을 쥐어주시면서 웅담의 효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소주 반잔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귀뜸해주셨습니다. 어느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가다가 웅담을 먹으려는 생각에 성도들을 먼저 식당에 보내고는 저 혼자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그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바람에 소주 달라는 말을 못하고 꺾만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성도들이 소주 반잔을 시켜주면서 웅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

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술을 먹었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돈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먹었다’고 하자니 시험 들 성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안 먹었다’고 하자니 거짓말이 되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날 단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저, 술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을 말하는 것이 때론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방패가 되고, 그것이 옳은 길임을 그때 깨달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지는 않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보다 정직한 자를 써라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3~165). 왜냐하면 정직은 빛이요, 거짓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이것저것이 다 장애물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듯, 정직한 자에게는 만사형통의 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시139:3). 그런데 그 앞에서 무엇을 속일 수 있습니까? 거짓은 그 순간뿐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12:19). 그러니 요셉처럼 누명을 쓰더라도 정직으로 일관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히 행하십시오.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잠11:1).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똑똑한 자보다 정직한 자를 써야 합니다. 사위를 볼 때도, 며느리를 볼 때도 요셉처럼 정직한 자를 들여야 집에 복이 들어옵니다.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번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던 양치기 소년처럼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 일진대 이제부터 거짓을 물어버리고 자신을 점검하여, 우리 중심에 정직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시51:6). 자녀가 정직하게 행하면 부모가 유쾌하듯, 우리의 정직으로 인해 하나님도 유쾌하실 것입니다(잠23:16).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공정(公正)과 평등(平等)

공정(公正)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고, 평등(平等)은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 같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평등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잘못된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공정이란 진행 과정에 불법이나 특혜 시비 없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과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무시한 채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는 오히려 공정한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며 진정한 평등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과 류현진, 추신수 선수 같은 이들은 1년에 백억이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내 실업팀 선수들 중에는 연봉이 몇 천만 원인 선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이고, 지금 연봉을 적게 받는 선수들도 자신들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는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사회입니다.

대기업이나 대형교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불공정으로 매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우매한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 세상이야말로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능력대로 대접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평등한 것

입니다.

빈부귀천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착된 계급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자신의 지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장점입니다. 투쟁을 통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이미 실패한 사상과 이론입니다. 불공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고 나면 자신들이 욕하던 일들을 똑같이 자행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 서열 1위에서 168위까지 재산을 조사해보니 평균재산이 1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공정과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나가면 됩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야 있겠습니까? 기업의 브랜드 파워(Brand power)를 키워나가듯이 개인의 역량과 실력을 높여가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고 노력에 따라 남겼습니다. 불평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가 되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3가지 스토리가 존재해야 한다. 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이다. 첫째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 즉 나의 이야기(My Story)가 있어야 한다. 요즘 SNS으로 맛집 찾기가 유행이다. 누군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면 난리가 난다. 먹어봤기에 자신 있게 올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음 또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내가 맛보지 못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힘이 없다.

맛을 보아야 하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벧전3:15).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His Story)를 알아야 한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음대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이웃들이 질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고 계심이 나타날 때 우리의 이웃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로, 비신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Our Story)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 나의 이야기를 말하여 희망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여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분의 스토리는 비신자와 함께 우리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실은 새로운 기회

1642년, 영국 동부지역 올스소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고, 그래서 아이는 자라면서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그 후 아이는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마쳤다. 그의 꿈은 박사였다. 하지만 그가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사는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하여 그 지역의 모든 대학이 문을 닫았다. 그는 꿈꾸던 모든 것이 상실됨을 느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람.” 그는 사과나무 밑에 앉아 낙담한 채 박사학위라는 꿈을 잃어버린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사과 한 개가 툭 떨어졌다. 갑자기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왜 사과는 옆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 하고 그는 의문을 던졌

다. 이 의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꿨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다. 이처럼 세기의 법칙은 낙담의 현장에서 탄생했다.

꿈을 잃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니다. 절망하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라.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새롭게 의문을 가졌던 뉴턴처럼,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꿔라. 상실이 새로운 기회로 사과처럼 떨어지리라. 상실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다. 포기는 자살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42:5).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당신의 집은?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일으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 형편은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안정되자 다른 나라에 마스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국가 선정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6·25 때 UN 참전국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우선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을진대, 그것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감동스럽습니다.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사랑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을 값으로 환산합니다. 명품 옷인지, 시장 옷인지로 사람을 구분하는 시대, 자동차의 크기와 브랜드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어이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그것에 동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값이 없다고 해서 값싼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세상의 것들을 다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을 증거 삼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의 피 값을 어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값을 물어 구원을 주셨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에게 거저 구원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고 예수님의 피 값이 험값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써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다 함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55:1).

때 늦은 후회, 있을 때 잘해

나는 지금 십자가 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 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머니가 지난달 소천하셨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딸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를 향해 거침없이 던졌던 망령된 나의 언행들... 늘 어머니께 소홀하고도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다 그렇지. 난 그래도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이웃과 지인들도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데...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 내가 어머니 소천 후 발가벗겨진 진실 앞에 서게 된다. 결국 처절한 후회와 회개만이 나를 뒤흔들어 놓는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남들의 시선을 염두에 둔 위선적인 행동들... 나는 어머니께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곤 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제 그만 가셔도 된다.’는 암시적인 것이었고, 속된말로 ‘이제 그만 가시면 좋겠다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해도 내 속마음은 ‘나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 나는 도대체 어떤 사

람이길래 이 모양 이 꼴일까?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 했던가?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그렇게 효심 지극한 형제들도 하나둘 지쳐가는 듯 어머니께 향한 마음과 사랑이 멀어져 갔다. 자식들이란 다 이런 것인가!

내 어머니는 우리 육남매를 키울 때 힘들다고 ‘이제 그만 가라’고 한 적 없었고,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이며 종이로 코를 닦으면 코가 험다며 어린 우리들의 콧물을 입으로 빨아 키우셨다. 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 사랑이 너무 좋아 사진처럼 내 눈에 고이 담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건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 나는 아직 어머니를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주님께 울며불며 조금만 더 곁에 머물기를 간구했다. 무엇을 위한 준비?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는 그런 게 아니었음을, 그 준비는 어머니께 필요한 게 아닌 나에게 필요했음을 나는 비로소 알

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단 한 번, 단 한 사랑으로 내게 보내주신 이름,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6:1~3).

다시는 내 생애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게 오실 분은 없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축복도 더 이상 내게 머물지 않을 터, 후회가 되어 울고 또 울었다

내게 유일무이한 이름 어머니, 그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흘러가 버렸다. 머잖아 천국에서 홀연히 변화된 개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리라.

부모님은 ‘살아서는 서퍽이고 죽어서는 만냥’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생전 부모님의 모습을 철없는 자식들은 서퍽의 초라

함으로 보다가 세월이 흘러 부모님의 모습이 서퍽이 아니라 만냥이었음을, 아니 만냥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때쯤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진다.

때늦은 후회보다 더 아픈 건 없다. 후회 없이, 통곡 없이, 회개 없이 보내드리는 것을 나는 준비해야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없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도리마저도 놓친 듯싶어 후회라는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뻐하셨음으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함으로 공경하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상속 받으시길...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고귀한 자유

난 외치리 예수! 난 외치리 자유!
고귀한 고귀한 자유와 기쁨을
손뼉 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손뼉 치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하나님
진리와 자유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오직 예수!

난 외치리 예수! 난 외치리 평화!
고귀한 고귀한 자유와 기쁨을
출을 추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예수님
출을 추며 찬송하리 영광의 주 예수님
진리와 자유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오직 예수!

朋友 2020. 4. 24
기도원에서 코로나 고난 중에 자유가 그리워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온전한 용서에서 건강이 온다

자연의학 및 심리학 박사인 알렉산더 로이드와 암 전문의인 벤 존슨의 공동 저서 ‘힐링 코드’에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이고 정서적인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 있는가 하면, 의학의 발전에도 원인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치료가 잘되지 않는 질환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암, 면역질환, 마음의 병 등이 더욱더 치료가 어렵기도 합니다.

저자인 암 전문의 벤 존슨은 암의 원인을 중금속, 바이러스, 세포의 산소부족, 대사성산증(산과 염기의 균형이 깨지는 질환), 정서적·영적 문제가 결합해 암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몸의 신호체계가 작동하기에, 평소와 다르게 세포에 영양, 산소, 무기질, 필수지방산을 흡수하지 않고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포에 독소가 쌓여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데, 양자물리학적으로 이러한 세포의 스트레스 상태는 우리 몸에 파괴적인 에너지 진동수가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 두뇌의 지적기능, 면역기능에 필요한 혈류순환이 방해가 되어 우리 몸의 약한 곳에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암 전문의인 벤 존슨은 암의 원인을 세포 기억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심각한 건강문제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듯이, 본인이 만나본 암 환자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

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화, 짜증, 누군가를 피하는 행위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내가 용서를 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를 못하게 되며, 온전한 용서는 그의 잘못을 판결하려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그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의 근원이며, 내분비계가 건강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막아주어 어떠한 질병과 증상도 발생하기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다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질병이나 문제에 대한 치료에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하루에 3번씩 책에 나오는 동작과 함께 실천을 권유합니다.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건강하지 못한 믿음, 파괴적인 세포기억 그리고 ___와(나의 고통이나 질병을 구체적으로 표현) 관련한 모든 신체문제를 발견하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빛, 생명,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치유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치유의 효과가 100배 이상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슬픔과 우울함, 조바심, 부정적인 마음, 불안함 등은 마음뿐 아니라 육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